

방학·휴가 사찰에서 보낸다

문화사업단, 여름 특별템플스테이
어린이청소년 위한 프로그램 제공

본격적인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는 7월이 왔다. 온 나라를 움츠러들게 했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도 그 기세가 꺾이고 있어 휴가철을 앞둔 사람들의 마음이 벌써부터 들뜨고 있다. 올 여름 휴가는 고민하지 말고 사찰로 떠나자. 시원한 바람을 쐬고 차가운 계곡물에 발을 담그며 즐겁게 놀면서 건강과 지혜까지 얻을 수 있는 일석다조의 일정이 기다리고 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진화스님)은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 동안 전국 사찰에서 '2015 여름 특별 템플스테이'를 연다.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40여 곳에서 진행되는 이번 여름 템플스테이는 특히 청소년과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하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노는 게 제일 좋아” 아이들의 대통령인 뽀로로의 주제가다. 그만큼 놀이는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문화콘텐츠. 방학을 맞아 학업에 지친 아이들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눈길을 끈다. 영암 도갑사는 어린이를 위한 ‘너, 나, 우리 함께 놀자! 템플스테이’를 실시한다. 월출산 생태체험, 물놀이, 캠프파이어, 천연염색 체험 등 신나게 노는 일정으로 꾸며졌다. ‘검정고무신 동심체험 템플스테이’는 성주 심원사에서 준비했다.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최초로 청소년수련활동인증 받은 곳으로, 꿈 등 만들기, 소금 만다라 명상, 향낭 만들기, 가야산 생태학습 등 알찬 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

몸과 마음에 휴식을 주면서도 지혜를 쌓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름 템플스테이에 참가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 영동 반야사의 ‘어린이 지혜학당 템플스테이’는 영어와 한자, 다도, 명상, 국산도 등 이색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아무나 오지도 못한다. 오직 초등학생을 위해 문을 연다. 여수 흥국사는 ‘어린이 영어 템플스테이’를 운영한다. 외국인 강사를 초청해 여는 템플스테이는 초등학생부터 중학생까지 참가할 수 있으며, 영어회화와 함께 계곡 물놀이, 명상 등 체험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이밖에도 일반 성인도 사찰에서 여유를 즐기며 무더위를 잊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여름특별템플스테이는 템플스테이 홈페이지(www.templestay.com)에서 일정확인하고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

김하영 기자 hykim@bulgyo.com

국방부 창원시, 군부대 이전 이유

창원 39사단 '안국사 철거' 강행 3년

베트남 한글학당 도서관 건립한

국제연꽃마을에 각현스님 향사도 4년



지역	사찰명	대상	일정
서울	국제선센터	초등학생	7/24-26
	금선사	초등학생	7/28-29
		중고생	8/4-5
		누구나	8/18-19
		초등학생	7/31-8/2
경기	화운사	중고생	8/7-9, 8/14-16
	불명사	만18세 이상 여성	8/12-16
	봉선사	누구나	7-8월
	육지장사	누구나	7/29-8/2, 8/5-8/9
	유문사	암마와 미취학 어린이(4세-7세)	7/27-28
충청		누구나	8/22-23
	법륜사	누구나(가족)	7/18-19, 8/8-9
		초등학생	8/15-16
		초등학생	7/31-8/2
	영평사	초등학생(교학년)	7/29-31
인천		중고생	8/3-7
	전등사	초/중/고	7/28-30, 8/4-6
	축서사	초4-중3	7/2-5, 7/9-12
		고등학생	7/20-22, 7/24-8/2
		대학생	8/9-11, 8/3-6
경북		일반/가족	8/6-9, 8/11-13
	자비선사	성인	8/1-7
	심원사	초/중/고	7월중순-8월말
	팔공사	누구나	7-8월 매주말
	도리사	초등-중학생	7/26-8/22
경남		초등학생	7/27-7/29
	대광사	초등학생	7/25-26
		누구나	7월
	문수암	중고생	8월 첫째주말
	봉도사	성인	7/30-8/1
대구		고등학생	7/18-7/21
	쌍계사	일반	
		대학생	
		일반	8/5-8/8
		초등생(3학년-6학년)	7/25-29
전북	동화사	누구나	*어린이 8/3-8/6 *청소년 7/26-7/28 *일반 7/22-7/24 8/7-8/9, 8/14-8/16
	개암사	누구나	7/31-8/2 8/7-9, 8/14-16 8/21-23, 8/28-30
	송광사(원주)	초등학생	7/27-29
	신홍사	누구나	7-8월
	미황사	초등학생(4학년-6학년)	7/26-8/2, 8/5-8/12
전남		대학생 이상 누구나	7/11-18, 8/15-22
	화엄사	대학생 이상 누구나	8/7-9
	대원사	누구나(초등생 제외)	7/11-14, 8/15-18
		초등학생(3학년-6학년)	7/24-25, 8/22-23
		초등학생	8/14-16
충북	대흥사	누구나	*어린이(초3-6/1-3) *청소년(중고생)8/5-7 *가족 8/11-13, 8/14-16 8/19-21, 8/22-24
	불갑사	초4 이상-중학생	7/31-8/2 8/7-8/9, 8/21-23
	도갑사	초등학생	7/31-8/2, 8/4-6
	송광사	성인	7/18-8/12
	천은사	누구나	7-8월
충남	흥국사	초등학생	8/7-10
	구인사	누구나	7/31-8/2, 8/13-15 *중등부 7/31-8/2 *청소년 8/7-9 *성인 8/14-16
	범주사	누구나	7/25-7/29
	반야사	초등학생	7/31-8/2
		중학생 이상	7/31-8/2
강원	갑사	누구나	7/25-26, 7/30-8/2 8/7-9, 8/14-16 8/22-23
	부석사	누구나	6월-8월
	수덕사	초등학생	7/27-7/29
	지장정사	누구나	7/31-8/2, 8/14-16
	마곡사	초중고	8월 1-2주
제주	마곡사	초중고생	7/30-8/1 8/13-15, 8/20-22
	백담사	누구나	7/24-8/31
		중고생	7/24-26
	월정사	누구나	*중고생 7/31-8/2 *누구나 8/6-9, 8/13-16, 8/20-23

총무원장 스님 등 종단협 회장단
황교안 국무총리 예방 받고 일침
“메르스 가뭄 극복위해 함께 노력”

종단협 회장 자승스님이 황교안 국무총리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종교 화합에 유념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가뭄 극복 등 현안 해결을 위해 불교계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뜻을 전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자승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지난 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종단협 회장단과 함께 황교안 총리의 예방을 받고 환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는 태고종 총무원장 도산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춘광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스님,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스님 등 종단협 회장단이 함께 배석했다.

종단협 회장 자승스님은 “바쁘신데 종단을 방문해줘 감사하다”며 “총리는 ‘국민의 기대와 뜻을 받들어 국정을 국민중심으로 이끌어 나가겠다’고 하셨다. 국민들이 사랑하고 존경받는 총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인사청문회 당시 제기됐던 국무총리의 종교 편향성에 대해 언급하며 “종교의 다양성이 존중돼야 우리 사회가 안정될 수 있다. 종교 갈등이 사회를 혼란시킬 수 있다”며 “종교화합에 특히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일침을 놓았다.

이에 대해 황교안 총리는 “종단 어른 스님들께서 환영해주시니 힘이 되고 용기가 될 것 같다”며 “우리 사회는 종교간 갈등이 많지 않고 잘 화합해왔다. 앞으로도 (종교화합에) 유념하면서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잘 하겠다. 종교간 화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비공개로 진행된 예방에서 종단협 회장단은 황교안 총리에게 메르스 사태와 가뭄 극복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주문하며 불교계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뜻을 전했다. 문화재 보존 노력과 함께 문화재 관련 규제완화에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임태규 기자



성전스님의
행복해지고 싶을 때

이국의 노동자

바닷가 길을 걷다가 자전거를 타고 오는 이국의 노동자를 만났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며 그는 나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도 그를 향해 손을 흔들며 미소 지어 보였습니다. 그 짧은 순간의 교차. 나는 그 순간이 인연이 되어 그와 나는 다음 어느 생애가 정다운 친구로 만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바닷가 마을에는 이국의 노동자들이 여장 일을 하기 위해 머물고 있습니다. 그들은 일이 없는 겨울이면 고국으로 돌아갔다가 봄이 되면 다



종단협 회장인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접견실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의 예방을 받고 ‘종교화합’에 유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재호 기자 air501@bulgyo.com

“선학원과 같 수 있다면 모든 노력 경주”

총무원장 자승스님 공문 보내

선학원 이사진에 ‘만남’ 제안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선학원 문제 해결을 위해 선학원 이사진에게 7일 낮12시 서울 AW컨벤션센터에서 만나자고 제안했다(3일 현재). 선학원 특별교구 지정, 종회의원 2석 배정 등 선학원 정상화추진위원회 법등스님이 제안했던 협의안과 더불어 법인관리 및 자원에 관한 법, 종헌 제9조 3항에 대해 대화하자는 취지에서다.

총무원장 스님은 최근 선학원 이사들 앞으로 공문을 보내 이같은 뜻을 전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공문을 통해 선학원 이사진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종단과 선학원이 함께 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종단이 제시한 협의안은 물론 법인관리 및 자원에 관

한 법 및 종헌 제9조 3항에 대해서도 만나서 진지하게 대화를 진행하다보면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선학원 측이 “법인관리법과 종헌 제9조 3항이 존재하는 한 대화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7일 실제 만남이 성사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총무원장 스님의 대화 제안에 대해 선학원은 지난 1일 총무회의를 열어 ‘대화 불가’ 입장을 담은 공문을 총무원으로 회신했다.

총무원의 한 관계자는 “3일 대화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선학원 이사장 명의의 공문을 받았다”며 “이사장뿐만 아니라 이사 개개인에게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이사들의 의견을 기다리겠다. (7월7일 만남은) 이후 논의를 거쳐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임태규 기자 che11@bulgyo.com

시 이 작은 마을을 찾아옵니다. 바닷가 길을 걷다가 이구를 손질하는 그들을 보면 나는 가만히 손을 흔들며 인사를 나눕니다. 그들은 그러면 마치 슬픔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내게 더 반가운 표정으로 인사를 합니다.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먼 이국에 와 노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가족을 향한 그 깊은 사랑이 그들의 미소 속에는 스며있는 것만 같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착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사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초 봄 두꺼운 잠바를 입고 시린 손을 붙여 가며 이구를 정리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나는 가만히 눈물 글썽이 적어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하지만 사랑으로 희생의 고됨을 잊는 사

람들의 삶은 착해서 눈물짓게 합니다. 연민은 착한 사람들에게 바치는 소리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나는 그때 알았습니다.

바닷가 마을길은 내게는 수행의 도량입니다. 그 길을 걸으며 이국의 노동자들을 볼 때 마다 연민의 마음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강강해 타인의 아픔을 몰랐던 마음에 비로소 아픔이 들어오고 그들의 고된 삶의 이야기들이 내 마음을 순하게 물들입니다. 수행이 대자비의 완성이라면 이국의 노동자들은 내게 일구어야 할 자비의 밭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전거가 스치고 지나간 자리에 여전히 연민과 슬픈 큰 노동자가 남아 있습니다. 착한 사람들에게 바치는 내 눈물이 아름다운 빛처럼 바다 위에 반짝입니다.
남해 염불암

생명나눔실천본부

생명나눔 명가 만들기

신청 및 접수 완료시 혜택

- 1 생명나눔 명가 인증패 및 기념품
- 2 소식지 뒷표지 모델로 선정
- 3 심의를 통해 틀니 치료비 지원

참여방법

- 1 가족 동의하에 신청서 요청 (온라인 등록 가능)
- 2 신청서 작성 후 발송
- 3 희망등록 카드 수령 후 인증샷 촬영
- 4 핸드폰으로 가족 인증샷 전송 (010-3754-8051)

가족단위로 **장기기증 희망등록** 을 하신 후 ‘등록카드’를 들고 다같이 찍은 ‘사진’을 보내주세요.

참여기간: 2015년 12월 31일까지

(사)생명나눔실천본부
[110-170]서울시 종로구 삼봉로95 대성스카이렉스 101동 406호 TEL. 02-734-8050